

진명인 번역본 「38도선」의 저본 연구*

- 저본 확정의 의미 -

박상현**

koreaswiss@hanmail.net

미네자키 도모코***

minetomoko@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38도선」의 저본 확정 의미 |
| 2. 진명인의 「38도선」과 후지와라 데이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비교 | 5. 마치며 |
| 3. 진명인의 「38도선」과 후지와라 데이의
『三十八度線』비교 | |

主題語: 저본(original), 후지와라 데이(Hujiwara Tei),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Flowing stars are alive), 귀환(withdrawing), 서사(narrative)

1. 들어가며

2005년 4월에 번역·출간된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Yoko Kawashima Watkins)의 『요코이야기』¹⁾는 한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출판금지 되었다. 『요코이야기』는 일제강점기에 북한에 거주하던 열두 살 난 요코가 일본 패전 후 38도선을 넘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인양(引き揚が) 서사 곧 귀환서사에 들어간다. 『요코이야기』가 출판 금지된 것은 그 내용 때문이었다. 이 작품은 귀환의 고초와 어려움, 그 과정에서도 빛나는 일본인의 인정, 반면에 아미규환 속에서 벌어지는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조선인의 성폭력과 같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주저자

***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1) 『요코이야기』의 영어 원서명은『So Far from the Bamboo Grove』로 1986년에 미국에서 출간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면서 수혜자와 가해자로 군림했던 일본인은 피해자로, 한편 차별 받고 피해를 입었던 조선인은 가해자로 뒤바뀌어 있었다.²⁾

그런데 일본인의 귀환서사 작품이 한국에 알려진 것은 『요코이야기』가 처음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1949년 8월에 진명인이 우리말로 옮겨 잡지 『민성(民聲)』³⁾ 8월호에 소개한 「38도선」이다.⁴⁾ 이 작품은 귀환서사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 후지와라 테이(藤原貞 혹은 藤原てい)의 수기(手記) 소설인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이후, 일본어 원본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로 표기)⁵⁾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⁶⁾

후지와라 테이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⁷⁾ 한국에서는 1985년에 양평이 『베스트셀러 이야기』에서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 관해 언급했고, 이후 김예림, 엄기현, 박상현·미네자키 도모코 등이 논문을 발표했다.⁸⁾ 일본에서는 최근에 스에마스 도모히로(末益智広), 와다 무라키치(和田邑吉) 등이 연구성과를 공표했다.⁹⁾

2) 요코 가와시마 윌킨스 저·윤현주 역(2005) 『요코이야기』 문학동네, pp.15-294

3) 유명환이 편집인 겸 발행인이었던 월간 종합교양잡지로 1945년에 창간되어 1950년에 중단됐다. 광복 직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좌익과 우익, 그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편집 자세는 시류(時流)보다 전체 국민을 의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http://encykorea.aks.ac.kr>(검색일: 2019.1.22.)

4) 진명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성』과 인연이 있는 일본어를 아는 언론인이었다고 추정된다. 진명인은 번역본에서 「三十八度線」으로 표기했지만 본고에서는 「38도선」으로 적는다. 일본어 원본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세한 것은 후술한다. 덧붙여 본고에서는 일본어 원본은 일본어로, 한국어 번역본은 한국어로 표기한다. 이것도 서로간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다.

진명인(1949) 「38도선」 『민성』, 고려문화사, pp.64-67

5) 藤原てい(1949)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日比谷出版社, pp.11-310

6) 2017년 8월 14일자 요리우리신문(読売新聞)은 후지와라 테이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특집을 기획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소설이 당시 얼마나 반향이 컸고, 이후 귀환서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알 수 있다.

7) 후지와라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귀환 작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은 국치의 역사를 망각하고 싶어서, 한편 일본은 과거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각각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8) 김예림(2010)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제29집, 상허학회

_____(2011) 「포스트콜로니얼의 어떤 복잡한 월경적 연애에 관하여: 구식민지와 구제국 그리고 기억·기록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제3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_____(2012) 「중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테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 『상허학보』 제34집, 상허학회

박상현·미네자키 도모코(2018) 「후지와라 테이 연구의 문제점-서지학적 측면에서-」 『근대일본학연구』 제60집, 한국근대일본학회

엄기현(2010) 「해방공간에서의 잔류 일본인 귀환 문제」: 『잔등』, 『압록강』, 『요코이야기』,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2집, 한국언어문학회

9) 末益智広(2018) 「藤原てい『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灰色の丘』をめぐる「引揚げ」の記憶」 『千葉大学大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선행연구에는 후지와라 데이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를 국내에 처음 소개한 진명인 번역본 「38도선」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 「38도선」이라는 번역본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진명인의 「38도선」이 무엇을 번역본으로 삼았는지, 곧 저본(底本)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정한다. 다음으로 저본 확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진명인의 「38도선」과 후지와라 데이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비교

1949년 4월에 단행본으로 출간된 후지와라(藤原)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는 패전 후 일본에서 나온 귀환서사의 전범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남편¹⁰⁾과 이별 후 후지와라는 어린 아이 세 명을 데리고 만주의 신경(新京) 곧 지금의 중국 장춘(長春)을 출발하여 안동(安東), 선천(宣川), 평양, 신막(新幕)을 거쳐 개성에 도착한다. 이후 부산에 이르렀고, 드디어 규슈(九州)의 하카타(博多)항을 통해 귀국하게 된다.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는 귀환 중에 후지와라가 체험한 상상을 초월한 고초, 그것을 이겨낸 모성애, 그리고 귀환 중에 체험하고 목격한 일본인의 비인간성과 더불어 몇몇 조선인의 따뜻한 인정이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다.¹¹⁾

진명인은 1949년 8월에 잡지 『민성』에 「38도선」을 게재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목과 저자 및 역자를 표시한다.¹²⁾

38도선

장편『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일부

学院人文公共学府研究プロジェクト報告書, 千葉大学大学院人文公共学府
和田邑吉(2014)「太平洋戦争の中の中学生:「食糧増産」と「須坂地下壕作戦」・「長野地方空襲」付信州小説鑑賞「大日向村」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満州勤民行」『須高』, 須高郷土史研究会

- 10) 남편은 후지와라 히로토(藤原寛人)였다. 후에 닛타 지로(新田次郎)라는 필명으로 작가 활동을 했다.
- 11)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식민주의의 혜택을 입은 가해자로서 그리고 지배자로서의 일본인은 전혀 그려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나리타 류이치(2003)도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말한다. “식민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에 대한 검토와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植民者としての自分の位相に対する検討と言及は見られず).” 成田竜一(2003)『『引揚げ』に関する序章』『思想』岩波書店、p.157
- 12) 「38도선」이 1949년 8월에 우리말로 번역·소개된 것은 1949년이 광복 4주기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발생, 일본 패전 후 일본인 귀환자들이 어떻게 38도선을 넘어 일본으로 건너갔는지에 대한 궁금증, 이 작품에 나타난 보편적인 모성애 등이 우리에게 「38도선」이라는 작품에 관심을 갖게 했다고 판단된다.

藤原貞 작

진명인 역¹³⁾

그리고 번역을 마치면서 부기(附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주에있던 과학자의아내로써 종전후 북조선으로피난하기 1년여에다시 일본으로 전재민들과함께 귀환한 실정을 엮은 藤原貞 부인의 장편『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일부다.¹⁴⁾

위와 같이 진명인은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번역 소개한 「38도선」이 후지와라의 ‘장편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일부’라고 밝힌다. 따라서 독자는 「38도선」의 번역본 곧 저본이 1949년 4월에 일본의 히비야(日比谷)출판사에서 나온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38도선」의 목차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목차를 비교해보자.

<표1> 「38도선」의 목차¹⁵⁾

시변리에 달다
풀 자리잡
내를 걷는다
재회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

<표2>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목차¹⁶⁾

第1部 涙の丘	第2部 教会のある町	第3部 魔王の声
駅までの四軒	丘の下へ	親書の秘密
別離	墓場から来た男	赤土の泥の中をものがく
無蓋貨車	歯型のついた芋	凍死の前
終戦の日	結婚の申込み	かっぱおやじ禿頭

13) 진명인(1949)「38도선」『민성』고려문화사, p.67

14) 띄어쓰기, 맞춤법 등은 원문 그대로 강조 표시는 인용자. 이하, 같음.

진명인(1949) 위의 작품, p.67

15) 진명인(1949) 위의 작품, pp.64-67

16) 목차이기에 굳이 우리말로 옮기지 않았다.

藤原てい(1949) 앞의 책, pp.4-8

夫との再会	白い十字架	二千円証文を書く
南下しようか	確定的な愛の因子	市辺里につく
新しい不安	春風に反抗する	川を渡るくるしみ
とうもろこしの皮	石鹸売りの先生	死んでいた老婆
夫よ何処へ	議論を食べて生きている夫婦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
涙の丘の上	乞食と同じもの	アメリカ軍に救助される
ダイヤモンド・ダスト	発狂した女	恨みをこめた小石
泣かない児	けがされた人形	気違いの真似をした法学士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ゲンナージの黒手袋	コンビーフの缶詰
いまぞこいしき	温飯屋の手伝い	貨車の中の公衆道徳
氷の日時計	むら雲しぼりの訪問着	百円紙幣を出す手品
氷を割る音	二人の子供と一人の子供	釜山にて
オンドルの煙	引揚げの機運動く	肥った藤原と痩せた藤原
虐待餓死	二百円儲けた話	魔王の正体
	団体の分裂	四千円の仮持参人
		上陸の日
		上陸第二日
		博多から諏訪へ
		ああ遂に両親に抱かれて

<표1>과 <표2>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38도선」의 목차는 대체적으로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목차에 나오는 제3부의 일부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변리에 달다’는 ‘市辺里につく’와, ‘내를 걷는다’는 ‘川を渡るくるしみ’와,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는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와 각각 대응한다. 하지만 목차만 봤을 때 「38도선」의 ‘풀 자리잡’·‘재회’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死んでいた老婆’ 등과 대응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8도선」의 ‘재회’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나는 절레나무위에 쓰러진채 하로밤을새었다. 八月十日아침 안개속에서 눈을떴다. 어린것들 들은 나한테 밧짝닥어 자고있었다. 사끼꼬는어느틈에 등에서 내려놓았는지 잔뜩두팔로 부들고 있었다.¹⁷⁾

17)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6

한편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死んでいた老婆’ 서두는 아래와 같다.

私は野薔薇の上に倒れたまゝ一晩過ごしていた。八月十日、私は朝靄の中に眼を覚した。子供達は二人とも私にくっついて眠っていた。咲子はいつ背中から下したのか、しっかり抱いていた。18)

그리고 그 밖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면 ‘재회’와 ‘死んでいた老婆’는 소제목 이름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

그런데 희한하게도 「38도선」에 나오는 ‘폴 자리잡’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진명인은 「38도선」에서 두 번에 걸쳐 ‘장편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일부’를 번역했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말이다.20)

번역자는 원문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원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원문에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번역본에는 변용(變容)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명인은 원본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 없었던 ‘폴 자리잡’을 번역본 「38도선」에 자의적으로 추가했다는 말인가?

그럼 지금부터 번역자의 원문 개입에 의한 ‘번역상의 변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38도선」과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내용을 비교해보자.

첫째, 「38도선」의 ‘시변리에 단다’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市辺里につく’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시변리에 단다’와 ‘市辺里につく’의 비교

시변리에 단다 ²¹⁾	市辺里につく ²²⁾
시변리(市邊里)에는 점심해가 기울어서야 다달았다. 사과밭에 에워싸인 적은거리에는 천막을 쳐 놓고, 보안대사람들이 일본인들의 보호를 하여주고있었다. <u>나는 이때 一행의 맨뽕문이에 쓰러져있었는데 짧은 보안대원이 나타나 “혼자서 세이이를 데리고가오!”하며 묻는것이였다. 나는 이말에</u>	市邊里には昼過ぎに到着した。林檎の畑に囲まれた小さい町にはテントが張ってあって、保安隊の人達が日本人の保護をしていた。

18) 藤原てい(1949) 앞의 책, p.235

19)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점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0) ‘폴 자리잡’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후술한다.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무어 먹고픈것이 없는
가 하기에 “사과를 살수있다면”하고 말하자 사
과를 꿩우리로 하나 가득 사다가 주었다. 붉으
스레한것이 열대알이나 된다. 값이 엄청나려니
하고 선득 받지 않고있자니까 “+원이오”한다.
나는 어찌나 고마웠든지 받아마자 침을 삼켜가
며 먹고파하는 어린것들에게 나노아주었다.

등에 업힌 사끼코(咲子)를 내려 젓꼭지를물
렸으나 아무리 빨어도 젖은 나오지않았다. 그
래도 빠는힘은 대단하여 젓꼭지만이 아플뿐이
었다. 무엇이라도 물려야겠다고 생각하여 나는
기어가다시피 하여 근처의 농가로 차저가 참외
두개를 사왔다.

背中から咲子を下して乳をふくませたが、ど
うしても乳が出ない。でも吸う力がまだ強く、
痛い程乳房を吸っている。何かやらねば、私は
こうようにして農家へ行ってマクワ瓜を二個
買って来た。

<표3>의 ‘시변리에 달다’에는 북쪽의 조선인 보안대가 귀환 중인 후지와라 가족에게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 “나는 이때 一행의 맨꼴문이에 쓰러져있었는데 어린것들에게 나노아주었다.”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반면에 ‘市辺里につく’에는 이 부분이 없다. 진명인이 번역하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한다면 원본에 큰 변용을 일으킨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피해자였던 북쪽의 조선인이 가해자이자 지배자였던 일본인²³⁾인 후지와라에게 해를 끼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귀환자라고 하더라도 소련군이 점령했던 북쪽에 있던 귀환자와 미군이 주둔했던 남쪽의 귀환자가 겪은 체험은 너무도 달랐다고 한다. 소련군은 북쪽의 산업시설을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자국으로 가져갔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군, 일본인 기술자와 노동자를 소련 본토나 시베리아·연해주 등으로 끌고 갔다. 후지와라가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소련군의 점령 정책 때문이었다. 또한 치안이 잘 되지 않아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당시 상황을 이연식은 『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의 최후』에서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고 있다.

21)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p.64-65

22) 藤原てい(1949) 앞의 책, p.228

23) 식민지 조선과 만주 등에 살았던 일본인은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배자로 행세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겨레신문』(2019.1.16.)

패전 후 북한·만주·다렌 등 소련 점령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귀환 과정을 곧 ‘지옥으로부터의 탈출’로 묘사한다. 대부분의 남성이 타지로 끌려가고 부녀자와 노약자가 주류를 이뤘던 북한에서 지옥에 대한 기억은 패전 초기와 남하 이동 과정에서 겪은 성폭력 사건, 동절기 피난민단의 집단 사망 사건이 양대 축으로 형성되었다.²⁴⁾

따라서 ‘시변리에 달다’에 보이는 조선인 보안대가 후지와라 가족에게 친절을 베푸는 “나는 이때 一행의 맨뽕문이에 쓰러져있었는데 …… 어린것들에게 나노아주었다.”와 같은 장면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둘째, 「38도선」의 ‘내를 걷는다’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川を渡るくるしみ’의 내용을 비교해보자.

<표4> ‘내를 걷는다’와 ‘川を渡るくるしみ’의 비교

내를 걷는다 ²⁵⁾	川を渡るくるしみ ²⁶⁾
해가셋녁으로질때 수면과의 반사로 말미암아 물속에서 휘청휘청 안정을잃고 쓰러지려한때도 몇 번이나있었다. 마사히꼬는 발이 아프다고울며 맨뒤에서 떨어왔다. 일본인의 집단과 다시만났을때 나는 뚝우에 그냥 뺏고야 말았다. 숨쉬기조차 가뻘었다.	日が西に傾くと水面からの反射のために川の真中でくらくらとして安定を失いかけたことが何度もあった。 <u>最後の川にはずっと下流に橋がかゝっていた。私はこの水勢では流されると思ったから、随分下流まで川岸を歩いて行った。半分腐りかけた橋であった。いつその事、橋が落ちて四人が一緒に死ねるならその方が私達にとって幸福かもしれない。ぐらぐら揺れる橋を渡ると先へ行った日本人は全部此处で休んでいた。荒れはてた畑が野原のように淋しく、人家らしいものは全然なかった。ただ橋の付近にむかし人家のあったしるしのいしづえだけがころがっていた。</u> 正彦は足が痛い痛いと言きながら一番後からついて来た。日本人の群に合流すると私は土手の上につんのめってしまった。呼吸をするのさえ困難である。

24) 이연식(2012)『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의 최후』역사비평사, p.177

25)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6

‘내를 건너다’와 ‘川を渡るくるしみ’를 비교해보면『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 있는 “最後の川には …… しるしのいしづえだけがころがっていた。”의 내용이 ‘내를 건너다’에는 생략되어 있다. 이 부분에는 강을 건너는 귀환자의 고단함이 잘 나타나 있고, 그 고단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후지와라는 “다리가 떨어져서 4명이 함께 죽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일지도 모른다(橋が落ちて四人が一緒に死ねるならその方が私達にとって幸福かもしれない)”라고 말하고 있다. 귀환 과정의 고단함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정명인의 ‘내를 건너다’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셋째, 「38도선」의 ‘재회’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死んでいた老婆’의 내용을 비교해보자.

<표5> ‘재회’와 ‘死んでいた老婆’의 비교

재회 ²⁷⁾	死んでいた老婆 ²⁸⁾
“사끼야마상 三十八道線은 멀었우!” “이산만 넘으면!”	「崎山さん、三十八道線はまだ?」 「この山を越えればそうだって」 <u>そういつて一息入れようとする、道の片隅に腐っている老婆がいた。その手が妙に組み合わされているのでよく見ると、老婆は死んでいた。手だけは合掌させて、東の方を向かせてあった。死んで日本に帰るようにとの思いやりかもしれない。「今死んだばかりだわ」山崎さんがいった。桔梗の花がまだ水々しく供えてあった。「でも埋めてやればよいのに。身寄りはないのかしら」「あつたつて、なくなつたつて同じこと、死んだ人なんか放っとくさ。皆んな勝手に行っちゃうんだ」山崎さんは冷たくいいきつて通り抜けた。今迄にだって随分死んだ人があるに違いない。でも、こう水々しく死体を置き去りにした人達は憎らしい。</u>
평탄한길은 갑작스러이 내림길로 변하여지며 앞이 흰하게터졌다. “물이있다!”	平板な道は急に下り坂になり、あつという間に広い処へ出た。「水がある!」

26) 藤原てい(1949) 앞의 책, p.234

27)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6

28) 藤原てい(1949) 앞의 책, pp.239-240

‘재회’와 ‘死んでいた老婆’의 내용을 비교해보면『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 있는 “そういって一息入れようとする、……人達は憎らしい”의 내용이 ‘재회’에는 생략되어 있다. 이 부분에는 귀환 도중 객사한 할머니, 죽어서라도 일본에 귀국하고 싶어 하는 심정이 담겨져 있는 그 망자의 모습, 그리고 그런 시체를 묻지도 않고 모른 척하는 귀환자의 냉정함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명인의 ‘재회’에는 이 부분도 빠져 있다.

넷째, 「38도선」의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와『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의 내용을 비교해보자.

<표6>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와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의 비교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 ²⁹⁾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 ³⁰⁾
“오! 이 일본사람들은어데냐” 이렇게목원소리로 외치자 먼데서 “여기다!” 이렇게대답하는소리가 들린다. 소리나는쪽을 향하여 작은논포랑길을 종종거름으로 거러갔다. 어린것들도 자기들의몸에 큰위험이 맞부딪쳐왔다고 생각하였는지 이제는울지도않는다.	「おうい! 日本人は何処かあ!」と声を限りに叫ぶと、遠くの方で「こっちだあ!」と答える、その方向へ向かって狭い田圃道を小走りに走って行った。子供達も、私達の身に最大な危機がせまっていると直感したのか泣いていなかった。 <u>真暗闇の中で白い壁に突き当たった。一軒の農家であった。と突然家の中から二、三人の人が出て来て、なにか大きな声でいうと家の中から白米のおにぎりを一杯に盛ったパカチを持った女の人が出て来て、私達の鼻先に突きつけた。「パンモグラ、パンモグラ」私達は手を振って「お金がないから買えない」のだと答えた。その人達おはげしく頸を振った。【註 パカチは瓜の一種で作った容器、パンモグラは御飯を食べなさいの意】「そうではない、唯あなた方に差上げるのだ」と身振りでいっている。「パンモグラ、パンモグラ」私達はその言葉に涙を流しながら、幼児の頭ほどあるおにぎりにかぶりついた。私は一年余の思い出のうちでこの《パンモグラ》という言葉ほど温く心を溶かしたものはなかった。</u>
다시 마을을 지나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에 부	部落を出るととうとうと流れる大河のほとり

닥쳤다. 달도 별도없다. 금시라도 비가올듯한
침침한밤 나는큰강에 부닥쳐 다시 웨쳤다. “일
본사람은 어디요! 오-이”

に立った。月も星もない、今にも雨が降りそう
な夜であった。私達は大河のふちに立って叫ん
だ。「日本人は何処か! おゝい!」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와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의 내용을 비교해보면『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 있는 “真暗闇の中で白い壁に突き当たった。……この《パンモグラ》という言葉ほど温く心を溶かしたものはなかった。” 부분이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에는 빠져 있다. 이 부분은 북쪽의 조선인 농부가 굶주리고 지쳐 있던 후지와라 가족에게 주먹밥을 공짜로 주고, 후지와라 가족은 그것에 감사하는 대목이다. 피해자인 조선인이 가해자이고 지배자였던 일본인에게 인간미 넘치는 온정을 베푸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에는 생략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진명인의 「38도선」과 후지와라 데이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목차와 내용을 비교해보면, 내용의 ‘추가’와 ‘삭제’라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런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다. 「38도선」에는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는 보이지 않는 ‘풀 자리잡’이 들어 있다. ‘풀 자리잡’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쪽 조선인 농부가 지쳐 있는 후지와라 가족에게 잡자리를 제공하고 있고(A), 38도선을 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고(B), 이 소설의 제목인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C). 차례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³¹⁾

A. 시변리를 떠나던날밤에는 큰 쏘낙비가 나리었다. 소도 못갈정도로 퍼붓는비에 우리의 앞은 다만 암담할 뿐이었다. 할수할수 없어 달구지를 멈추고 하루밤 잡자리를 그 근처집의 소오양간으로 택하였다.

B. 산을넘고 내를건너 최후로 내 셋을 연달아 넘어서야 쉬이고있는 한패의 일본인들의 집단과 만날수가있었다. 나무밑에서 찻샷 四백원을 주고 나니 더욱 섭섭하였다. 이젠 돈을 꾸어달래도 델도리가없다. 이렇게 된이상 어린것들을 걸려서라도 三十八도선까지 가지않아서는 안되게되었다. 三十八도선을 넘으면은 미국군대가 있다. 그곳까지만 간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을수있다는 말을 듣고있다.

29)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7

30) 藤原てい(1949) 앞의 책, pp.244-245

31)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5

C. 유성(流星)이 이제껏 넘어온 고원(高原) 저-쪽으로 빗겨 사라진다. 나는 저 유성을 볼때마다 지난해 가을 언덕위에서 작별한 남편을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막막한때 남편을 생각하여 감상적으로 된다는것은 도리혀 기운을 잃는것같어 다만 별만을 바라볼뿐이다. 그 유성은 자꾸 자꾸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군 하였다…….

A에서 “달구지를 멈추고 하루밤 잠자리를 그 근처집의 소오양간으로 택하였다”라고 나와 있듯이 후지와라 가족은 저녁에 소나기를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그때 외양간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북쪽 조선인 농부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B에서 “三十八度線を 넘으면은 미국군대가 있다. 그곳까지만 간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후지와라 가족에게 38도선은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경계였다. 38도선을 넘는다는 것은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C에서 “유성(流星)이 이제껏 넘어온 고원(高原) 저-쪽으로 빗겨 사라진다. 나는 저 유성을 볼때마다 지난해 가을 언덕위에서 작별한 남편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때 ‘유성’은 남편을 상징한다. 그러기에 후지와라는 이 소설의 제목을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라고 ‘살아 있다(生きている)’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생이별을 한 남편의 생환(生還)을 기원하면서 말이다.

또한 “시변리에 단다”에는 ‘市辺里につく’에는 보이지 않는 북쪽의 조선인 보안대가 후지와라 가족에게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 보인다.

둘째, 삭제다. ‘내를 건느다’에는 ‘川を渡るくるしみ’에 보이는 귀환 중에 후지와라 가족이 체험한 고단한 여정 묘사가 빠져 있다. 또한 ‘재회’에는 ‘死んでいた老婆’에 보이는 귀환하던 일본인 할머니의 객사와 그 시체를 모른 척하는 귀환자의 냉정한 태도에 대한 묘사가 빠져 있다. 그리고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에는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에 보이는 북쪽 조선인 농부가 후지와라 가족에게 베푼 온정 묘사가 빠져 있다.

이와 같이 진명인의 「38도선」에 나타난 ‘추가’와 ‘삭제’ 곧 번역상의 변용으로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내용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진명인이 이렇게까지 원본을 훼손해 가면서 번역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럴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진명인의 「38도선」과 후지와라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비교에서 확인됐던 번역본에 나타난 ‘변용’은 번역자의 개입에 의한 번역상의 ‘변용’이 아닐 수 있다. 그럼 대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진명인이 「38도선」을 발표하면서 번역할 때 저본으로 삼은 것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을 하게 된 것은 첫째, 저자인 후지와라 데이의

인명 표기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진명인의 「38도선」에는 후지와라 데이가 ‘藤原貞’라고 되어 있는데,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는 ‘藤原てい’라고 ‘데이’가 히라가나(ひらがな)로 되어 있다. 후지와라 데이의 인명 표기로 ‘藤原てい’가 일반적이다.³²⁾ 둘째, 제목이 다르다는 데 있다. 진명인 번역본 제목은 「38도선(三十八度線)」이지만, 원본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다.

만약 「38도선」의 저본이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 「38도선」의 저본이었을까?

3. 진명인의 「38도선」과 후지와라 데이의 「三十八度線」 비교

후지와라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를 연구하는 국내외 연구자는 1949년 4월에 일본 히비야출판사에서 나온 단행본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라는 텍스트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세상에 먼저 나온 것이 있다. 놀랍게도 단행본보다 2개월 빠른 시점인 1949년 2월에 후지와라의 「三十八度線」이라는 작품이 하네다서점(羽田書店)이 발간하는 『^{とう}塔』라는 잡지에 소개됐다.³³⁾ 『^{とう}塔』의 목차에는

(創作) 三十八度線 藤原貞³⁴⁾

라고 되어 있다. 또한 ‘三十八度線’이라는 제목 하에 ‘市辺里につく’, ‘草のしとね’, ‘川を渡る’, ‘再会’,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라는 소제목이 실려 있다.

진명인의 「38도선」과 잡지 『^{とう}塔』에 실린 「三十八度線」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32) 후지와라 데이는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초간본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했는데 그때 이름을 모두 ‘藤原てい’라고 표기했다.

田村吉雄 編(1953) 『秘録大東亜戦史』(全10巻 수록) 富士書苑

藤原てい(1963)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世界ノンフィクション』 수록) 筑摩書房

藤原てい(1976) 『新版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中央公論新社

33) 1949년 1월에 창간된 잡지다.

34) 藤原貞(1949) 「三十八度線」 『^{とう}塔』 羽田書店, p.1

<표7> 「38도선」과「三十八度線」의 비교

	「38도선」 ³⁵⁾	「三十八度線」 ³⁶⁾
저자명	藤原貞	藤原貞
제목	三十八度線	三十八度線
소제목	시변리에 달다 ‘풀’ 자리잡 내를 건너다 재회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	市辺里につく 草のしとね 川を渡る 再会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진명인의「38도선」과 후지와라 데이(藤原貞)의「三十八度線」은 저자명, 제목, 소제목에서 모두 정확히 일치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명인은 번역을 마치면서 부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만주에있던 과학자의아내로써 종전후 북조선으로피난하기 1년여에다시 일본으로 전재민들과함께 귀환한 실정을엮은 藤原貞 부인의 장편『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일부다.³⁷⁾

그런데 이런 부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 「三十八度線」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

著者は科学者の妻として満州にあつて終戦となり、北鮮に避難してゐること一年余、その悲惨な生活の記録を帰還してから長編「流れる星は生きてゐる」と題してつづつた。本編はその一部分を抜きだしたものである。(編集部)³⁸⁾

그렇다면 이들 텍스트의 내용 비교는 어떤 양상을 보여줄까? 앞서 예시한 <표3>~<표6>은 「38도선」과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고, 이를 통해 번역본과 원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교 대상은 동일해야 하기에 여기서는 <표3>~<표6>의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38도선」과 「三十八度線」의 내용을 비교한다.

35)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p.64-76

36) 藤原貞(1949) 앞의 작품, pp.89-96

37)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7

38) 藤原貞(1949) 앞의 작품, p.96

<표8> ‘시변리에 달다’와 ‘市辺里につく’ 비교

‘시변리에 달다’ ³⁹⁾	‘市辺里につく’ ⁴⁰⁾
시변리(市邊里)에는 점심해가 기울어서야 다 달았다. 사과밭에 에워싸인 작은거리에는 천막을 치 놓고, 보안대사람들이 일본인들의 보호를 하여주고있었다. 나는 이때 —행의 맨쫘문이에 쓰러져있었는데 젊은 보안대원이 나타나 “혼자서 세이이를 데리고가요!”하며 묻는것이였다. 나는 이말에 대답할 기운조차없었다. 무어 먹고 픈것이 없는가 하기에 “사과를 살수있다면!”하고 말하자 사과를 광우리로 하나 가뜩 사다가 주었다. 붉으스레한것이 열대알이나 된다. 값이 엄청나려니하고 선득 받지 않고있자니까 “+원이오!”한다. 나는 어찌나 고마웠는지 받자마자 침을 삼켜가며 먹고파하는 어린것들에게 나노아주었다.등에 업힌 사끼꼬(咲子)를 내려 젓꼭지를물렸으나 아무리 빨어도 젖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빼는힘은 대단하여 젓꼭지만이 아플뿐이였다. 무엇이랴도 물려야겠다고 생각하여 나는 기어가다시피 하여 근처의 농가로 차저가 참외 두개를 사왔다.	市邊里には昼過ぎに到着した。林檎の畠に囲まれた小さい町にはテントが張ってあって、保安隊の人達が日本人の保護をしてゐた。私は列の末端で倒れてゐると、若い保安隊の人がやって来て、「あんたひとりで三人の子供をつれてゐるんですか」と訊いた。私はそれに答へる元氣も無かった。何かほしいかと訊かれたから、「林檎が買へたら」と云ふと、籠の中に林檎を一杯買って来てくれた。少し赤味がかつた林檎が十五個もあつた。私は大変なお金を取られると思つて手を出さないでゐると、「十円です」と云つた。私はをがむやうにそれを受取ると、喉をならして待つてゐる子供達へ与へた。背中におぶつた咲子をおろして乳をふくませたが、どうしても乳が出ない。でも吸う力は強く、乳房が痛んだ。何かやらねばと思ひ、私は這うやうにして近くの農家へ行き、まくわ瓜を二個買って來た。

<표9> ‘풀 자리잡’과 ‘草のしとね’ 비교

‘풀 자리잡’ ⁴¹⁾	‘草のしとね’ ⁴²⁾
A. 시변리를 떠나던날밤에는 큰 쏘낙비가 나리였다. 소도 못갈정도로 퍼붓는비에 우리의 앞은 다만 암담할 뿐이였다. 할수할수 없어 달구지를 멈추고 하루밤 잠자리를 그 근처집의 소오양간으로 택하였다.	A. 市邊里を出た夜はおおげしい夕立に逢つた。牛さへ歩みをとめるほどの雨の中に前途は暗⁴³⁾とした。やむなく牛車をとめ、一夜の宿を付近の農家の牛小屋に求めた。

39)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p.64-65

40) 藤原貞(1949) 앞의 작품, p.90

41)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5

42) 藤原貞(1949) 앞의 작품, pp.90-91

B. 산을넘고 내를건너 최후로 내 셋을 연달아 넘어서야 쉬이고있는 한패의 일본인들의 집단과 만날수가있었다. 나무밑에서 찻샷四百원을 주고 나니 더욱 섭섭하였다. 이젠 돈을 꾸어달래도 댈도리가없다. 이렇게 된이상 어린것들을 걸려서라도 三十八도선까지 가지않어서는 안되게되었다. 三十八도선을 넘으면은 미국군대가 있다. 그곳까지만 간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을수있다는 말을 듣고있다.	B. いくつか山と川を越え、最後の三つの川を続けて渡った所で、大体止してゐる日本人の集団に出逢った。木の下で車賃四百円を払ふと私は急に心細くなった。もう金を借りるあてはない。かうなったら子供達を歩かせて三十八度線まで頑張らねばならない。三十八度線を越へればアメリカ軍がある。其処までたどりつけば私達は助かるのだと聞いてゐる。
C. 유성(流星)이 이제껏 넘어온 고원(高原)자쪽으로 빗겨 사라진다. 나는 저 유성을 볼때마다 지난해 가을 언덕위에서 작별한 남편을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막막한때 남편을 생각하여 감상적으로 된다는것은 도리혀 기운을 잃는것같아 다만 별만을 바라볼뿐이다. 그 유성은 자꾸 자꾸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군 하였다…….	C. 流れ星が越えて来た高原の遠くに尾を引いて落ちていった。私は流れ星を見るたびに去年の秋丘の上で別れた夫を思ひ出す。こんな時、夫の事を思つて感傷的になつたりする自分が不甲斐なくて、氣をつめてじつと星を見つめてゐた。それはいくつもいくつも流れては消えていった……。

<표10> ‘내를 건느다’와 ‘川を渡る’의 비교

‘내를 건느다’ ⁴⁴⁾	‘川を渡る’ ⁴⁵⁾
해가셋녁으로질때 수면과의 반사로 말미암아 물속에서 휘청휘청 안정을잃고 쓰러지려한때도 몇번이나있었다. 마사히코는 발이 아프다고올며 맨뒤에서 떨어왔다. 일본인의 집단과 다시만났을때 나는 뜰우에 그냥 뺏고야 말았다. 숨쉬기조차 가뻔다.	陽が西にかたむくと、水面からの反射のために川の真中でくらくらとして安定を失ひかけたことが何度もあつた。正彦は足が痛い痛い泣きながら一番後からついて来た。日本人の群に合流すると私は土手の上につんのめってしまった。息をするさへ困難である。

43) 판독되지 않음.

44)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6

45) 藤原貞(1948) 앞의 작품, p.92

<표11> ‘재회’와 ‘再會’의 비교

‘재회’ ⁴⁶⁾	‘再會’ ⁴⁷⁾
사끼야마상 三十八度線은 멀었우!” “이산만 넘으면!” 평탄한길은 갑작스러이 내림길로 변하여지며 앞이 흰하게터졌다. “물이있다!”	「崎山さん、三十八度線はまだ?」 「此の山を越えれば……」 平たんな道は急に下り坂になり、あつと云ふま に広い場所に出た。「水がある!」

<표12>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와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의 비교

‘삼십팔도선을 돌파하다’ ⁴⁸⁾	‘三十八度線を突破する’ ⁴⁹⁾
“오-이 일본사람들은어테냐” 이렇게목쉰소리 로 외치자 먼데서 “여-기다!” 이렇게대답하는소 리가 들린다. 소리나는쪽을 향하여 적은 논포랑 길을 종종거름으로 거러갔다. 어린것들도 자기 들의몸에 큰위험이 맞부딪쳐왔다고 생각하였는 지 이제는울지도않는다. 다시 마을을지나 도도 하게흐르는 큰 강에 부닥쳤다. 달도 별도없다. 금 시라도 비가올듯한 침침한밤 나는큰강에 부닥쳐 다시 웨쳤다. “일본사람은 어디요!오-이”	「おうーい、日本人は何処かあ!」と声をかぎり に叫ぶと遠くの方で「こっちだあ!」と答へる声が する。その方向へむかって狭い田圃道を小走り に走って行った。子供達も、自分達の身に最大 の危険がせまってみると直感したのか、もう泣 いてはゐなかった。部落を出ると真に滔々と流 れる大河のふちに立った。月も星も無い、今に も雨が降りさうな暗い夜、私達是大河のふちに 立って叫んだ。「日本人は何処かあ!おうーい!」

위와 같이 「38도선」과 「三十八度線」의 인용 부분은 모두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진명인이 「38도선」을 발표할 때 번역본 곧 저본으로 삼은 것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아니라 「三十八度線」이었다.

4. 「38도선」의 저본 확정 의미

그렇다면 「38도선」의 저본을 확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949년 8월에 잡지

46)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6

47) 藤原貞(1949) 앞의 작품, p.93

48)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7

49) 藤原貞(1949) 앞의 작품, p.94

『민성』에 소개된 「38도선」의 저본은 1949년 4월에 출간된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아니라 1949년 2월에 잡지 『塔』에 실린 「三十八度線」이었다.⁵⁰⁾

진명인은 「38도선」을 게재하면서

38도선

장편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일부

藤原貞 작

진명인 역

과 같이 서술했다.⁵¹⁾ 그리고 진명인의 이런 서술은 「三十八度線」의 부기에 나와 있는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본편은 그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流れる星は生きてゐる』と題してつづった。本編はその一部分を抜きだしたものである)”⁵²⁾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그런데 「三十八度線」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일부가 아니다. 「三十八度線」과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는 다른 텍스트라고 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三十八度線」은 1949년 2월에 잡지 『塔』에 실렸고,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은 1949년 4월에 출간됐다. 시기적으로 「三十八度線」이 세상에 나온 것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보다 2개월 빠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三十八度線」은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발췌 요약이 아니다. 단행본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 둘은 후지와라의 귀환서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미묘하게 다르다. 그럼 점에서 이 둘은 다른 텍스트다. 「三十八度線」과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다른 텍스트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이 두 텍스트

50) 국내에서 「三十八度線」이라는 텍스트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정광현이다. 그는 1949년 12월에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를 번역한 『내가 넘은 삼팔선』에서 “나는 지난여름 일본서 나온 『塔』이란 잡지에서 『후지와라 데이』(藤原貞)여사가 쓴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한토막-三十八도선을 넘은 대목을 읽었다(원문 그대로 인용자)”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양평도 1985년에 발간한 『베스트셀러 이야기』에서 후지와라 데이는 귀국 후 『塔』에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는 제목으로 그 귀환 과정을 썼는데 라고 말했다. 박상현·미네자키 도모코도 「후지와라 데이의 문제점-서지학적 측면에서-」에서 「三十八度線」이라는 작품이 있다는 정도만 가볍게 기술했다. 결국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三十八度線」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은 없었다.

후지와라 데이 저, 정광현 역(1950) 『내가 넘은 38선』 수도문화사, p.2

양평(1985)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p.53

박상현·미네자키 도모코(2018) 「후지와라 데이의 문제점-서지학적 측면에서-」 『일본근대학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p.170

51) 진명인(1949) 앞의 작품, p.64

52) 藤原貞(1949) 앞의 작품, p.96

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38도선」 곧 「三十八度線」에는 ‘풀 자리잡(草のしとね)’이 나오는데 반해,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이 생략된 부분에는 후지와라 가족에 대한 북쪽 조선인 농부의 배려, 38도선의 의미,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의 ‘별’의 상징성 등이 나와 있다. 즉, “달구지를 멈추고 하루밤 잠자리를 그 근처집의 소오양간으로 택하였다”라고 나와 있듯이, 후지와라 가족은 저녁에 소나기를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에 피해자였던 북쪽 조선인 농부였다. 또한 “三十八도를 넘으면은 미국군대가 있다. 그곳까지만 간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을수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되어 있듯이, 38도선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였다. 그리고 “유성(流星)이 이제껏 넘어온 고원(高原) 저-쪽으로 빙겨 사라진다. 나는 저 유성을 볼때마다 지난해 가을 언덕위에서 작별한 남편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듯이, ‘유성’은 남편을 상징했다. 또한 ‘시변리에 달다’에는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는 빠져 있는 후지와라 가족에게 친절을 베푸는 북쪽의 조선인 보안대가 그려져 있다. 한편 ‘재회’에는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 나와 있는 일본인 할머니의 객사와 할머니 시체를 모른 척하는 귀환자의 냉정한 태도에 대한 묘사가 빠져 있다.

결국 「38도선」 곧 「三十八度線」은 역경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은 휴먼드라마였고, 모성애가 잘 드러난 텍스트였다. 또한 가해자인 일본인 후지와라 가족에 대해 피해자인 조선인 농부의 온정이 부각된 텍스트였고,⁵³⁾ 일본인 귀환자 상호간에 보였던 그들의 비인간적인 냉정한 태도가 감추어져 있는 텍스트였다.⁵⁴⁾

53) 이연식(2012)은 『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의 최후』에서 후지와라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후지와라는 나중에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를 몇 번에 걸쳐 개정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은 서술하지 않았다. 그런 후지와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배자였던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민 조선인의 인간적 배려를 묘사하는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이연식(2012) 『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의 최후』 역사비평사, p.216

54)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三十八度線」의 첫 수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바야시(小林)가 잡지 『塔』의 편집후기에서 “후지와라 부인의 처녀작 「38도선」은 어린 아이 세 명을 돌봐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참담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귀환 기록으로 마음을 도려내는 듯하다. 그리고 **강한 모성애와 삶에 대한 집착**을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으로 최근의 수확이다(藤原貞夫人の処女作「三十八度線」は幼き三児の母として慘憺言語に絶する引揚の記録で、切々胸をえぐり、**強き母性愛と生への執着**とを赤裸に描く近來の收穫である)”라고 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고바야시는 휴먼드라마(삶에 대한 집착)이고, 모성애, 가해자인 일본인 가족에 대한 피해자인 조선인 농부의 온정이 그려진 텍스트를 ‘강한 모성애와 삶에 대한 집착’이 드러난 텍스트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바야시는 후지와라가 그리려고 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三十八度線」을 수용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어쩌면 패전 후 재일(在日) 조선인에 가졌던 일본인의 일반적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즉, 패전 후 일본에 살던 조선인 가운데에는 전승자와 같은 태도를 취해 일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패전 후 일본사회에는 재일조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미지도 강하게 있었다. 예컨대 2019년 3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패전 후 일본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5. 마치며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첫째, 1949년 8월에 진명인이 잡지 『민성』에 번역·게재했던 「38도선」의 저본은 1948년 4월에 발표된 후지와라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아니라 같은 해 2월에 잡지 『塔』에 실렸던 「三十八度線」이었다. 특히 「三十八度線」이라는 텍스트는 일본에서도 그 존재가 잊혀 있었다.⁵⁵⁾ 그것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38도선」의 저본을 확정함으로써 「三十八度線」이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혔다. 「三十八度線」과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은 후지와라가 귀환하면서 겪었던 귀환의 고단함과 모성애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둘은 다른 텍스트였다. 곧 「三十八度線」에는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해자인 일본인 후지와라 가족에 대해 피해자인 조선인 농부의 온정이 부각되어 있었다. 또한 전자에는 후자에는 있었던 일본인 귀환자간의 비인간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았다.⁵⁶⁾

이것도 모두 재일조선인이 암시장을 장악해서 그렇다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전한다. 이와 같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감정 때문에 「三十八度線」에 나오는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 농부의 온정과 같은 내용을 감추고 싶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일본인의 정서가 이후에 출간된 후지와라의 단행본인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56)에서 다시 언급한다.

『한겨레신문』(2019.3.2)

- 55) 후지와라를 선구적으로 연구했던 나리타 류이치도 잡지 『塔』에 실렸던 「三十八度線」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그(2003)는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세 번 다시 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관련 원고는 적어도 4번에 걸쳐 다시 쓰였고, 다음과 같이 세상에 나왔다. 즉, 1949년에 잡지 『塔』에 「三十八度線」이 처음 소개된 이후, 藤原てい(1949)『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日比谷出版社), 田村吉雄 編(1953)『秘録大東亞戰史』(富士書苑), 藤原てい(1963)『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筑摩書房), 藤原てい(1976)『新版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中央公論新社) 등이 출간됐다.

成田竜一(2003)『『引揚げ』に関する序章』『思想』岩波書店, p.164

- 56) 그렇다면 이와 같은 텍스트 간의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진명인의 「38도선」은 1949년 2월에 『塔』에 실렸던 「三十八度線」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2개월 후인 1949년 4월에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출간됐다. 따라서 이 2개월 사이에 시대상황이 급변해서 텍스트 내용이 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후지와라에게 자신의 소설을 다시 쓰도록 한 것일까? 첫째,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소설이 수기(手記)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수기는 자신이 체험한 것을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쓴 기록문학이다. 따라서 추후 다시 쓸 때 상세한 부분에서는 재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자기검열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인의 조선인관에는 무시와 멸시의 역사가 뿌리 깊다. 패전 직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이런 일본인의 감정이 있었기에 후지와라는 「三十八度線」에 나왔던 가해자인 일본인 후지와라 가족에 대해 피해자인 조선인 농부의 온정을 단행본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 그대로 담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잡지와 달리 단행본은 독자 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나리타 류이치(2006)가 이 수기 작품에 대해, 이것은 자신이 겪었던 것을 그대로 적은

【참고문헌】

- 김영희(2015)『한국전쟁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북스, p.38
박상현·미네자키 도모코(2018)「후지와라 데이의 문제점-서지학적 측면에서-」『일본근대학연구』한국일본근대학회, p.170
양평(1985)『베스트셀러 이야기』우석, p.53
요코 가와시마 윗킨스 저, 윤현주 역(2005)『요코이야기』문학동네, pp.15-294
이연식(2012)『조선을 떠나며: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의 최후』역사비평사, p.216
진명인(1949)「38도선」『민성』고려문화사, pp.64-67
후지와라 데이 저, 정광현 역(1950)『내기 넘은 38선』수도문화사, p.2
『한겨레신문』(2019.1.16.)
『한겨레신문』(2019.3.2.)
成田竜一(2003)「『引揚げ』に関する序章」『思想』岩波書店、p.157
_____ (2006)『帝国の戦争経験』岩波書店、p.185
藤原てい(1949)『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日比谷出版社、pp.11-310
藤原貞(1949)「三十八度線」『塔』, 羽田書店、p.1
<http://encykorea.aks.ac.kr>(검색일: 2019.1.22.)

논문투고일	: 2019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06일
2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要旨>

진명인 번역본 「38도선」의 저본 연구

- 저본 확정의 의미 -

박상현·미네자키 도모코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첫째, 1949년 8월에 진명인이 잡지 『민성』에 번역·게재했던 「38도선」의 저본은 1948년 4월에 발표된 후지와라 데이의『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가 아니라 같은 해 2월에 잡지 『塔』에 실렸던 「三十八度線」이었다. 특히 「三十八度線」이라는 텍스트는 일본에서도 그 존재가 잊혀 있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38도선」의 저본을 확정함으로써 「三十八度線」이『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혔다. 「三十八度線」과『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는 후지와라가 귀환하면서 겪었던 귀환의 고단함과 모성애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둘은 다른 텍스트였다. 「三十八度線」에는『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해자인 일본인 후지와라 가족에 대해 피해자인 조선인 농부의 온정이 부각되어 있었다. 또한 전자에는 후자에는 있었던 일본인 귀환자간의 비인간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았다.

Study of translation script at “38th parallel north”

- Meaning to determine the original -

Park, Sang-Hyun · Minezaki, Tomoko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facts were newly revealed. First, The transcript of the “38th parallel north” translated into the magazine “Minseong” was not the “Flowing stars are alive” of Fujiwara Tei, which was published in April 1948, in the transcript of the “38th parallel north” that was published in February 1949. Especially in February, the text of “38th parallel north” was forgotten in Japan. Second, it confirmed the record of the “38th parallel north” published in February 1949. I have also found out that the “38th parallel north” is not a translation of the part of “Flowing stars are alive”. It was the same in that it recorded the harshness of return and maternal love that Fujiwara, the “38th parallel north” and “Flowing stars are alive”, was returning to. But if we look more closely, these two were different texts. In “38th parallel north”, the warmth of the victim, the Korean farmer, was highlighted against the Japanese Fujisawa family, an invisible perpetrator, in “Flowing stars are alive”.